

오순절 후 열번째 / 교회학교 승급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8월 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8 장 “주 예수여 은혜를” (통일 48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9 번 (요한복음 1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골로새서 1:9-12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예 배”	찬양대
설 교 Sermon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갈망은”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64 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통일 48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2:9)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개역개정 골1:9)

“For this reason, since the day we heard about you,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and asking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NIV Colosians 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6 (주일)	8/7 (월)	8/8 (화)	8/9 (수)	8/10 (목)	8/11 (금)	8/12 (토)
	삿20	삿21	룻1	룻2	룻3,4	삼상1	삼상2
본문	행24	행25	행26	행27	행28	롬1	롬2
	렘34	렘35	렘36,37	렘38	렘39	렘40	렘41
	시5,6	시7,8	시9	시10	시11,12	시13,14	시15,16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9수 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6)-“성령” (롬8:9)
특별 새벽기도회 (8/12토 오전6:30)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시119:41-48)

지난 주일(7/30)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에베소서 1:16-19)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은 1 차, 2 차, 3 차에 거친 선교 여행을 통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20 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환송했던 것도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그들을 만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에베소에서 만났던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16 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라는 의미는 (단지) 한두 번 기억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매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였습니까? 1)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고(엡 1:17), 2)둘째는 마음의 눈(영안)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했으며(엡 1:18), 3)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엡 1:1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미래에 경험될 소망 뿐 아니라, (이미)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함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더해주시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